

경계짓기: 균형의 필요성

베로니카 잉글리쉬* & 앤 쉼머빌**

여기에 제시된 견해는 논자들의 생각으로서, 영국 의료협회와는 관련이 없다.

2025년 저널파티로 가보자. 어떤 사람이 스미스씨 가족은 파란 눈을 가진 딸을 얻기 위해 돈을 썼다고 이야기한다. 차라리 그 아이의 음악적 재능을 키우는 데 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사설, 2001년 4월 14일)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식을

* 베로니카 잉글리쉬(Veronica English)는 영국 의료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료윤리 분과의 부의장이다. 의사들에게 윤리적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침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1994년 영국 의료협회에 합류하기 전에는 불임 시술 규제에 관한 자원 단체, 규제기관과 7년 동안 함께 일하기도 했다.

** 앤 쉼머빌(Ann Sommerville)은 1987년부터 영국 의료협회에서 일해왔으며, 현재는 영국 의료협회 의료윤리 분과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의학, 윤리, 법, 인권이 만나는 접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다. 육체적인 매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상의 스미스씨 가족처럼 파란 눈을 가진 아이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음악적 능력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가지 방법, 즉 배우자를 주의 깊게 고르거나 또는 잘 먹이고 특별한 재주를 가르치는 등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낮게 만들어주는 방법만이 존재했다. 그 중 어느 쪽도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못했고, 그저 핸디캡을 약간 줄여줄 뿐이었지만 말이다. 재능 있고 매력적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예비부모의 역량이 부족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도 강조한 적이 있다. 그의 팬 한 사람이 그의 위트와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고루 갖춘 아이가 태어난다면 사회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해 쇼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인, 그 아이가 그녀의 두뇌와 내 얼굴을 타고날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생식의 여러 측면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가족의 규모와 터울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중증 질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질환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산업화된 나라들에서는 점점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 하면서도 양육에는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질’은 여전히 변화무쌍한 자연적 생식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착상전 검사부터 성형수술, 거대한 미용 산업에 이르는 여러 개입을 통해) 완벽에 이르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들에게 아이의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궁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음악과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지만, 그 무엇도 그런 재능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과학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 열린 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이와 함께 제기된다.

자연적 방법 vs 과학적 방법

아들을 낳고 싶다면 아빠의 왼쪽 고환을 묶어야 한다고 충고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적어도 그때부터 부모들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비부모들은 벌써부터 아이의 유형에 영향을 미쳐 더 좋은 쪽으로 만듦고자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해왔다. 신문의 '애인 구함(lonely heart) 광고란을 보면 사람들이 사귀고 싶은 상대의 유형을 꽤 소상히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파트너를 선택하면서 장래 태어날 아이의 구체적인 특성까지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아이를 낳을 부모로서 상대방이 적절한가 하는 고려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것이다.

워츠(Wertz)와 플레처(Fletcher)에 따르면, 회음부 절개, 겸자 사용, 선택적 제왕절개와 같은 방법들이 지난 세기 초에 출산 과정의 일부로 도입된 것은 “그 당시 산모와 의사가 공유했던 생각, 즉 더 완벽한 아이를 낳으려는 소망과 자연적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¹ 여성들은 신경관의 결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을 복용한다. 엽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술과 약물을 삼간다. 자신들의 아이를 최고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기만 하는 육아 관련 출판왕국에 돈을 지불한다. 발육 중인 아이의 건강에 대해 이렇게 강박적이라 할 수준의 관심이 암묵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가족의 안녕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부모들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킨다. 축구, 음악, 댄스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에서 빼어난 실력을 갖추도록 아이들을 장려하거나 강요한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프로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아이의 목종에 힘입어, 혹은 그런 목종마저도 없는 상태로 아이들에게 떠넘겨왔던가? 부모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여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잘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모들에게 그런 목표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의 건강, 외모, 성격의 일부를 선택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이처럼 뿌리 깊은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라면, 또 자식을 위해 그 결과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처럼 칭찬할 만한 계획으로 여겨진다면, 이를 실행하는 여러 방법들 사이에 사회적 차등을 매길 만한 근거는 있는 것일까? 과학적 방법으로 자식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차갑고 가혹한 일인 반면에, 우연적이고 종종 효과적이지도 못한 ‘자연적’ 방법은 계획에 없던 임신만큼이나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며 우연적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치료 vs 향상

사회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 지식을 이용하거나 아이의 매력이나 인지력,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이나 교육과 같이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

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거의 복권당첨 수준의 운이다(그리고 그래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비슷한 조치들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는 점에 동의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고통과 장애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면 대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 같다.

레스닉(Resnik) 같은 사람들은 치료와 향상을 나누는 이같은 이분법을 비판해왔으며, 그런 식으로 경계를 지을 때 사회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심스러운 전제”에 기대어왔다고 주장했다. “(1) 우리는 건강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2) 다른 목표는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 치료라는 목표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² 그렇지만, 치료라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선택이나 변형을 허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주된 우려는 그로 인해 ‘다른(different)’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완벽한 아이에 대한 비현실적인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이 분야의 의학적 발전에 신중해져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픈 것도 아니면서 단지 신체를 보다 ‘향상시키겠다’는 목적만으로 의학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생각해보면(성형수술, 식이요법[dietary regimens] 등), 이렇게 신중한 태도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장래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형질을 심어주는 데까지 의학을 확장시키려 하는 것이 이런 현재 사고방식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의사들이 다운증후군 아이의 외모를 바꾸는 성형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준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 수술이 환자의 장애를 줄이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

겠지만 말이다.

‘이질적인’ 사람들은 동질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동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튀게 하고자 노력한다. 특정한 기증자의 정자나 난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미인대회 여왕의 난자가 최고가에 팔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정자 또한 마찬가지이다(만일 버나드 쇼였다면, 아이가 석학의 보잘 것 없는 몸과 쇼걸의 지능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구매자들에게 일깨워줬을 테지만 말이다). 기증받은 난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기증자의 키, 체격, 눈 색깔, 모발 색깔 등에 대해 선호하는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그들은 주로 배우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내용을 선택한다. 이는 ‘맞춤아기’ 논쟁에 흥미로운 전환점을 제공해준다. 자연출산의 경우와 최대한 비슷한 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특출한 재능과 외모를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그런 특성은 상대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아끼고 고이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재능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또는, 적어도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재능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실린 최근의 사설에 따르면, “(환영할 만한) 의학적인 치료와 (현명치 못한) 부모의 완벽주의”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한다. “부모가 동성애와 같은 형질을 제거하거나 운동신경, 큰 키, 높은 IQ와 같이 좋은 유전적 형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역겹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적 향상에 대해 비판가들이 내놓는 타당한 지적 중 한 가지는, 그것이 아이에게 이전 세대의 우선순위를 부과함으로써 아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린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정이 미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선택의 폭을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진 가치 체계의 문제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해 주는 것이다. 때로 그들은 아이들이 하게 될 장래의 선택을 제약하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도 한다. “부모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라고 시켰던 아이는 나중에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10인치 더 큰 키로만 들어놓은 사람은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³

용어(Terminology)

용어는 어느 논쟁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용하는 용어는 정책(policy)에 영향을 주며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대중 매체들을 잠깐 살펴보면 유전 기술의 잠재성에 대해 사회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그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종종 관련되어 있다.

‘맞춤아기’

‘맞춤아기’는 온당치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생식을 조절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요약하고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이러한 이분법이 너무 단순하기는 하지만) 치료가 아닌 유전 향상을 지칭하며, 부모의 변덕에 따라 ‘사소한’ 특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소함에도 서열을 정할 수 있다면 스미스씨 가족의 파란 눈 선호는 사소한 것으로 분류되겠지만, 딸을 선택한 것은, 특히나 그 가족에게 아들만 있는 상태였다면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성별에 관

련된 유전질환에 걸리기 쉽다면 딸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소함’이 아니라 ‘상당히 분별 있음’의 범주로 분류될 것이다.

‘맞춤아기’라는 말은 암묵적으로 아이를 패션 액세서리에 비유하고 있다. 또 신체를 향상시키는 (성형) 수술이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맞춤약’처럼, 이 용어는 ‘맞춤아기’를 생활양식에 따른 선택 사항으로 변질되어버린 의료기술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용어는 인간의 형질 패키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손쉽게 ‘쇼핑 치료법’(retail therapy, 기분 개선을 위한 쇼핑)의 일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선택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경멸조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식을 조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이 용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심신 장애를 피하기 위해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 꼬리표가 붙지 않는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고’ 용인할 만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규절차’(routine procedure)

산전 관리 중에서도 장애 산전 검사는 받아들이기 만한 부분으로 간주되면서 요즘에는 출산 계획이나 출산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결과, 초음파 검사나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 검사가 ‘정규절차’로서 제공되며, 여성들도 그 검사를 받아들이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절’, ‘선택’, ‘안심’과 같은 단어들은 산전 검사를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올바른’ 일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생식기술의 일면을 ‘정규적’이거나 ‘표준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그러한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가 두 배나 더 힘들

다고 느끼게 되기도 한다.

여성들에 따르면, 그들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산전 검사의 압력을 받는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함의를 깊이 따지지 않은 채 제공되는 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산전 검사를 정규절차처럼 만들게 되면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가 산전 검사를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일로서 받아들였던 여성들이(그리고 불행한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안심’을 위해 시행했던 여성들이) 나쁜 통보를 받았을 때, 무척이나 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장애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면 부모는 그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은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다.

‘정상’과 ‘비정상’

장애나 중증 질환의 유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정상과 비정상,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 대한 인식마저도 문화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 경계가 의학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들은 서구 의학이 일관적 체계라기보다는 민족적으로 선호하는 진단들과 다양한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 다른 시기, 다른 집단마다 진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장애 또한 사회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성애가 그 한 예로서, 현재는 개인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의 일이다. 개인에 따라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일례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장애로 여기지 않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자식이 청각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찬성하기까지 한다.⁴

유전학자 앵거스 클라크(Angus Clarke)의 보고에 따르면, 터너 증후군(불임과 작은 키, 때로는 과당한 외모를 유발한다)인 태아를 가진 어느 커플은 “평균보다 나이도 많고 절실히 아이를 원했지만, 태아가 비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임신중절을 결정했다.⁵ 그들에게는 도박을 걸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 질환이 의학적으로 심각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지만, 제한된 범위의 ‘정상’만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 소위 ‘비정상 임신’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산전 검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다른 연구에서 프라이드(Pryde)와 그의 동료들은 초음파 검사의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임신중절을 택하는 쪽이 30%라는 점에 주목했다. ‘가벼운’ 비정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아무도 임신중절을 선택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경우에도 12%만이 임신중절을 선택했다.⁶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식 어구를 쓰는가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책 임 과 비 난 에 대 한 생 각

산전 검사를 규범으로 인식하게 되면, 장애아 출산을 떳떳하지 못하거나 비난받을 일로 느끼게 될 위험이 크다. 재능이 있거나 매력적인 아이의 부모를 (불합리하게) 칭송하게 됨에 따라, 완벽하지 않은 자식을 둔 부모를 실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 연구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과 세상 사람들, 일부 유전학자들은 검사를 받지 못했던 다운증후군 아이의 엄마보다 검사를 거부했던 다운증후군 아이의 엄마를 더 많이 비난한다고 한다.⁷ 산전 검사를 이용해 장애아 출산을 피해야만 한다는 이런

명백한 기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경멸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산전 검사를 통해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어온 것처럼 여겨져 왔다. 우리는 대부분의 임신부가 지배적인 문화관을 따라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우생학적'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건강한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보다는 장애아를 유산시키는 일이 더 큰 문제이면서 성급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차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태아의 미약해 보이는 권리보다는 여성의 자율적 선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전 검사의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계획했던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 태아보다 더 낮고 더 완벽한 태아를 선호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유전자화'(geneticization)는 사람들의 중요한 걱정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구성에 따라 사람들의 개성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의 책임, 보상, 처벌을 법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장애나 헨디캡의 원인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비해 유전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부각된다면, 아동 보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유전적 방법은 관심을 잃게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도 줄어들 것이다. 유전적 원인이 강조되면 될수록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의 임신부나 아이들에게 돌아갈 복지/구제 물품을 늘려가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어갈 것이다.

균형 지키기

이미 논의되었듯이 생식기술의 영향에 관해 타당한 우려들이 많기는 하

지만, 부모들의 동기를 하찮은 것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분명히, 부모들이 자식에게 유리한 출발점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완벽한 자식만을 원하거나 불완전한 아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에서는 예비부모들이 미리 규정된 완벽의 개념을 기준으로 수집된, 태아의 건강이나 비정상성에 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계산한 후 결정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그저 본인들이 가진 가장 좋은 형질을 물려받은 건강한 아이를 원할 뿐이다. 아이는 개인이 미래로 지속되는 방식의 한 가지이고, 그렇기에 그 아이는 미래 세대에까지 남기고 싶은 내 자신의 형질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주의 깊게 조작된 인간의 원형(原型)이 제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는 없다.

많은 연구들이 산전 검사를 받고 임신중절을 고려해야 했던 여성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보여주었다. 어떤 연구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부모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임신중절을 할 때 극심한 슬픔과 비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런 비탄은 불완전한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의 상실을 육친의 죽음처럼 느끼는 데서 연유한다. 완벽한 자식을 바라는 소망과 산전 검사의 사회심리적 결과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 선택에 관한 윤리적 토론들은 사실상 표피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로, 특정 기질이나 특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규명되지만 하면 그 즉시 유전자를 조작하여 아이의 유전자 구성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라고 쉽리 가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유전적 향상을 위한 유전자 이식법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생각해볼 때 그 방법을 인간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논의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지능과 같이 훨씬 복잡한 특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사실상 그런 표현형을

강화하는 데 있어 유전자 이식법은 결코 이용되지 못할 것이다.”⁸ 더욱이 대중매체의 과대포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발이나 눈 색깔을 선택하느라 소란을 떨 것이라는 실제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이유에서 성별을 선택하려 하는 생각만이 이에 대한 예외가 될 것이다. 가족 균형을 맞추거나 아들을 먼저 얻기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그 목표를 위해 어디까지 갈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유전질환이 없는데도 그저 선택의 폭을 최대한으로 만듦을 위해 의학적 도움을 구해 병원에서 임신하려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지도 확실치 않다. 수정 후 단계에서 골라내야 하는 경우, 즉 비용과 불편함, 시험관 시술의 제한적 성공률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만족을 위한 경우를 피해야 하는 한편, ‘필요’가 아닌 ‘불만’을 해결하는 의학을 하찮은 것으로 몰아붙이는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디자인’하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극단으로까지 치달으려 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가정을 지지해줄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참작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결론

바람직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징들을 두루 갖춘 완벽한 사람에 대한 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판타지는 여러 문명의 신화나 이야기

속에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꿈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그 곳, 재미있는 판타지의 속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에 도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기술이 존재하면 그 기술을 이용하라는 기술적 명령(technological imperatives)의 위험은 항상 존재해왔다. 걱정스러운 점은, 변덕스런 이유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유행하는 특성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재능을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부모들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아이의 외모나 성질을 그런 식으로 제어하려 할 경우, 거기서 돌출될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선택이나 디자인이) 실패한 아이들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도 고민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아이가 아이 자체로서가 아니라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상품이나 물건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고통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간섭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견처럼 보이기도 한다. 맥기(McGee)는 대중매체들이 이상적인 완벽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이나 『남성의 건강』(Man's Health)에 등장하는 완벽한 아기들은 “체중 84kg에 키는 183cm까지 자라고 질병은 없다. 지능지수(IQ)는 150이고 생의학에 특히 재능이 있다.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활동적인 훌륭한 스포츠맨이지만, 시와 근사한 와인을 즐길 줄도 안다.”⁹ 하지만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디자인한’ 단점 많은 부모들과는 비슷한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우수한 사람들끼리만 친척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을까?

반세기 전에도 미래 세대를 우수하고 총명하게 만들어보려는 꿈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달랐다. 당시에는 부모 개개인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

른 버전의 '맞춤아기'가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던 1945년의 논쟁을 혐오스럽게 바라본다. 당시에는 “바람직한 자질이 매우 부족한” 부모는 임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생식은 건강하고 총명하며 사회적으로 쓸모 있고 “유전적 오염”을 시키지 않을 만한, 자식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야 했다. 유전병에 걸린 친척이 있는 여성에게는 임신하지 말라고 말했고, 총명하지만 게으르거나 기생충 같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이런 사회상이 보여주는 간섭과 부모들이 하려는 간섭은 그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현재 혹은 미래 사회가 이 선택을 더 현명하게 다룰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사회는 ‘사소한’ 특징의 선택을 권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아이들의 권리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와 그 외의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미스씨 가족이 그들이 원하는 파란 눈의 딸을 가까운 장래에 주문해서 받기는 힘들 것이다. 부모의 기대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결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격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유전적 향상은 안 되지만 의학적인 목적의 선택은 괜찮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다. 중증 질환을 막기 위한 유전자 조작과 선택은 납득할 만하고 부모에게도 편한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치료에서 향상으로 가는 길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실하고 선명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지 않은가 말이다. 어느 경우에도 타인(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규제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해결책에 대한 관심 때문에 미래 세대

의 건강을 지켜줄 사회적, 정치적, 비유전적 해결책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이 영역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